2027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 유 의 사 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교는 선비를 기르는 곳이다. 그러나 옛 성왕(聖王)들의 뜻은 단지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반드시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와 제도가 모두 학교에서 나오도록 한 뒤에야 학교를 세운 뜻이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보았다. 조정에 관원들을 줄 세워 명령을 선포하거나, 노인을 봉양하고 고아를 구제하거나, 큰 전쟁이 있을 때 장수와 군사를 소집하거나, 큰 재판이 있을 때 관리와 백성들을 모으거나, 큰 제사가 있을 때 시조를 기리는 등의 온갖 행정적·의례적 행사를 단지 학교에서 치르기 위함이 아니다. 대개 조정의 고위 관료부터 민간의 미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서히 학문과 도덕에 젖어 들게 하여, 누구나 선비다운 너그럽고 활달한 기상을 지니도록 만들고자 함이다. 천자(天子)가 옳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천자가 그르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도 아니다. 천자 또한 감히 스스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 옳고 그름을 공론하였다. 그러므로 선비를 기르는 것은 학교의 일들 중 하나일 뿐이며, 학교가 단지 선비를 기르기 위해서만 세워진 것은 아니다.

삼대(三代)* 이후에는 천하의 옳고 그름이 전적으로 조정에서 나왔다. 천자가 칭찬하면 모두 좇아서 옳다고 하였고, 천자가 나무라면 모두가 그것을 그르다고 하였다. 장부의 기록, 기한의 조율, 재정과 군사, 재판 등 모든 실무는 세속의 관리들에게 맡겼다. 세속의 풍조와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조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도리어 학교의 교육을 두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현실 실정에도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기질을 부린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들이 말하는 학교라는 곳은 과거(科擧)에 합격하기 위해 소란스럽게 다투고, 부귀를 얻기 위해 애를 태우는 곳이 되었고, 마침내 조정의 권세와 이익으로써 학교 본연의 바탕을 변화시켰다. 재능과 학술이 있는 선비들은 도리어 초야(草野)에서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애초에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으니, 결국 선비를 기르는 일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삼대(三代) :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세 왕조인 하(夏), 은(殷), 주(周)를 이른다.

[나] It is perhaps self-evident that the outworking of policy is seen in the exercise of power if it compels individuals to behave in a way which they would not have chosen to do. Policy can be used to highlight power relationships, but it can also allow for depersonalization of power and decision-making: a leader could imply that while they don't really agree with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the policy dictates it and therefore it must be done. In the same way policy can act as the source of authority such that hierarchy* is unnecessary: a group of individuals may resort to policy to guide their decision-making when there is no established authority figure to set their direction. Ultimately those who define policy exert power over those who follow policy and, in education at least, it is rare that policy is determined collectively: at best, leaders are elected democratically so that they may set policy for the electorate*. There is therefore an inevitable reliance on a political elite, and a consequent hierarchy of power. A frequently seen example of policy as power in schools is uniform. It is for the 'governing board' of a school to determine if it has a uniform, and if so what it is, but parents and children have a duty to comply, and school staff have a duty to enforce it. Countless children will have discovered that they cannot appeal to the logic that inadequate uniform does not affect their learning, and nor can they resort to any individual to plead* their case, for the power rests within the policy itself: it is sufficient to say that you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because that is what the policy says.

*hierarchy: 위계, electorate: 유권자, plead: 호소하다

[다] 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유가 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라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다.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당대의 유가 악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禮)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非樂論)을 전개하였다.

[라]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라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자신이 동일한 자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철학자가 이 인격 동일성 문제를 고민했다.

데카르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체와 정신이 각각 독립적인 실체라고 전제한 후 영혼이 있음을 추론해 나갔다. 그에 의하면,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에 어떤 다른 것, 즉 영혼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되고 이 영혼에 의해 존재는 지속한다.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히 로크는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하였다.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 증명되는데, 그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까지 확장된다.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칸트는 특히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영혼의 실재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이므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하거나 '나'의 실재를 의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재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대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다는 것이다.

[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계속 변한다. 뼈의 조직조차 변하여, 7년이 지나면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뀐다고 한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인 것일까? 나의 몸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수적(數的) 동일성 문제로 답할 수 있다. 수적 동일성이란 두 개체가 완전히 똑같은 개체라는 뜻으로, 돌 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수적 동일성은 성립한다.

여기에서 철학자들은 돌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왜 수적으로 동일한가를 설명해야 한다. 우선 돌 때의 나와 지금의 나에 대한 개인 동일성의 근거로 신체를 제시하는 신체 이론이 있다. 돌 때의 나와 지금의 내 신체는 많이 변하였지만, 돌 때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까지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어 왔으므로 이 연속성을 근거로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 이론으로는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뀐 경우에 수적 동일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왕자와 거지의 영혼이 바뀌었다고 가정할 때 신체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영혼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왕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왕자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동일성의 근거를 영혼으로 보는 이론이 바로 영혼 이론이다. 한편, 뇌에 들어 있는 기억, 느낌 등 각종 정보를 개인 동일성의 근거로 삼는 심리 이론도 있다. 심리 이론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기억들은 나에게만 존재하므로 기억을 근거로 동일성이 보장되고, 설사 기억이 드문드문 사라지더라도 그 기억들 간의 연속성을 통해 순간을 넘어선 연결 고리가 마련된다고 한다.

[바] '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민,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체제 유지,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룸으로써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일취월장하는 우리 동림 산업의 기개를 대외에 과시함은 물론 사우 간에 일체감을 조성하여 단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는 무엇보다 마땅히 제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왔던바, 회사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동림 가족 여러분의 충정 어린 권고와 건의를 그간 예의 검토하신 사장님께서는 금번 이를 십분 인정하시어 가칭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에에또, 다들 회람은 봤겠지?" 과장의 물음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하던 일을 멈추고 묻는 사람 얼굴만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 과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과 내에서 어떤 형태의 얘기들이 오갔는지 빤히 짐작이 갈 만한 분위기였다.

"돌려 가며 읽어 보라는 것이 회람이니까 다들 읽어 봤을 테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바로 사복을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네. 에에또, 우리 과에선 장상태 씨를 사원 대표 준비위원으로 추천했지. 워낙 해박한 지식에다 심미안까지 갖춘 사람이니까 다른 과 대표에 손색이 없게 잘 해낼 줄 믿네. 준비위원의 임무는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천에 무슨 빛깔, 어떤 형태의 제복을 정할 것인지 과를 대표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준비위원이 아니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요 우리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상태 씨나 나를 통해서 수시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라네."

"단순히 의견만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권도 있습니까?"

과장에 의해 낙하산식 준비위원으로 추천된 장상태 씨가 벼락감투의 무게에 짓눌려 우거지상이 되면서 매우 심각한 소리로 물었다.

"준비위원회 결정 사항이 그대로 무수정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정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준비위원회에서 사복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 지배적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과장이 회전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부대한 몸집의 과장은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장상태에게 다가갔다. (중략)

"사복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 감히 그런 주장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네가 그럴 생각인가? 사복을 만들지 말자고 다른 과 대표들을 선동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중략)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끝났다.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온 장상태의 표현을 빌자면, 열리면서 끝났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사복은 춘하와 추동 2종으로 구분하되 공히 상의에 한한다. 춘하복은 추후 결정키로 하고 우선 추동복만을 제정한다. (중략)

"내가 참석하는 걸 가정하는 경우하고 자네가 실제로 참석한 경우를 같은 차원에다 두고 결과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준비위원들을 통해서 사원들 의견을 알아본 다음 그걸 취합해서 원칙을 정한다는 약속이었어. 그런데 건의할 틈도 안 주고 비상을 걸듯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전격 통과시키다니, 말이 다르잖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 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 있는 판인데 실장이 씨익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할 상황이었다니까." (중략)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 하기로 하지."

1 (1)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학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제시문 [가]의 입장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묵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삼대 이후의 학교를 비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의 인격 동일성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칸트의 관점에서 [마]의 개인 동일성 이론들을 평가하시오. [30점]

3 제시문 [바]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사]의 '사복 제정 준비위원회'를 비판하시오. [30점]